

작품 내용

제 목	나비효과
내 용	장수찬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. 특별하게 잘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못 하는 것도 딱히 없는 그런 학생이었다. 그런 그에게도 취미가 있었으니, 그것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웹툰을 보는 것이었다. 장수찬이 가장 좋아하는 웹툰 <루나 어드벤처>, 벌써 몇 번이 나 봤는지 이제는 셀 수도 없는 수준이었다. 최신화를 먼저 보기 위해서는 매번 일정량의 금액을 지급해야 했지만 매주 한편만 올라오는 웹툰의 특성상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었다. 한가 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완결된 작품을 보고 싶을 때는 한 번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조 금 부담된다는 것이었다. 부담되는 가격에 시청을 망설이고 있던 찰나 친구 김인호가 말을 건 다. “야, 뭐하냐?” “웹툰 볼지 말지 고민 중” “그냥 봐 뭘 고민해.” “비싸잖아, 이거 다 보면 몇만 원 그냥 나와” “그걸 왜 돈 주고 봐?” “응?”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묻는 김인호의 말에 장수찬은 당황하였다. “그걸 왜 돈 주고 보냐고.” “뭐라는 거야, 그럼 어떻게 보는데.” 김인호는 의외라는 듯 핸드폰을 꺼내어 어떤 사이트를 보여주었다. 화면에는 수많은 웹툰이 나열되어 있었다. “너 이거 모르냐?” “뭔데 이게.” “와, 진짜 모르네. 이게 말이야 <웹툰 좋아>라는 사이트인데 너 보고 싶었던 웹툰들 있지? 그것들 다 여기서 공짜로 볼 수 있어” 김인호의 말에 장수찬은 깜짝 놀랐다. 보고 싶었던 웹툰들을 전부 공짜로 볼 수 있다니, 이 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. “진짜?” “진짜라니까, 나 못 믿냐?” “근데 이런 거 불법 아니야? 봐도 괜찮은 거 맞아?” “야, 어차피 못잡아ㅋㅋ 그리고 사이트 걸려도 우리까지 절대 못 잡아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봐.” 처음에는 미심쩍었다.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? ‘불법 사이트’ 라는 단어가 일으키는 거부감은 생각보다 더 컸다. 하지만 그 거부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. 처음에 들었던 불안감과 거부감은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기 시작하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졌다,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.

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는 것은 실제로 매우 편리했다.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뒤 원하는 작품을 검색하고 시청하면 되는 일이었다. 설령 사이트가 발각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처벌 받지 않을 테니 더 부담 없이 사이트를 즐길 수 있었다.

한번 불법 사이트의 맛을 본 장수찬은 그 뒤로도 계속 정식 플랫폼 대신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. 더 이상의 지출이 필요 없어진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. 이대로 쪽 불법사이트를 이용할 것이라 생각했지만, 불법 사이트에도 여러 단점이 존재했다.

“...어?”

어느 날 올라온 <루나 어드벤처> 작가의 공지. <루나 어드벤처>가 더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연재를 종료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.

“어...? 안되는데? 아직 남은 이야기가 많을텐데...? 아직 최종 흑막도 안 나왔는데 왜...”

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해 왔던 작품이기에 더 의문이 들었다.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던 장수찬은 결국 작가에게 메일을 보내 직접 이유를 물어보기로 하였다. 작가에게서 온 답장은 다음과 같았다.

“안녕하세요 독자님, <루나 어드벤처> 작가 리오입니다. 공지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연재 종료를 하게 되는 이유는 <루나 어드벤처>가 더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은 불법 사이트에 있습니다. 최근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작품을 결제하지 않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<루나 어드벤처>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. 불법 사이트를 검거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수궁하려고 합니다.”

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작품이 연재 종료되는 이유가 불법 사이트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장수찬은 충격에 빠졌다. 아무 생각 없이, 그저 편리하고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해 왔던 불법 사이트 때문에 자신의 최애 작품이 연재 종료를 한다니, 자신의 생각이 한없이 짧게 느껴졌다. 하지만 이제 와서 장수찬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.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한들 연재 종료된 작품이 돌아오겠는가.

이번 일로 깨달음을 얻은 장수찬은 그날부로 더 이상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다. <루나 어드벤처>와 같은 작품이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.